

## 숲에 모여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숲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숲 친구들도 하나 둘 숲으로 모여듭니다. 숲에서 마음을 나누고, 숲에서 미래를 가꿉니다. 숲에 모여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 식목일 기념행사 4월 5일

매년 식목일에 정부에 주관하는 식목행사에 전국의 청소년을 대표하여 참가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으며 숲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 푸른숲선도원 하계 수련대회 7~8월 중

여름방학이 시작될 즈음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합니다. 녹색수업과 연계한 산림박물관 견학 및 숲 해설을 통한 자연관찰,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숲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푸른숲선도원 하계 수련대회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습니다. 2005년 서울·수도권 지역 하계수련대회는 7월 25, 26일 양일간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모자와 기념품 등을 제공합니다.

### 전국 푸른숲선도원 그림, 글짓기대회 9~10월 중

푸른숲의 소중함과 고마움 및 봉사활동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직접 행사에 참가하는 백일장과 전국 각 학교별로 우편 접수를 하는 공모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대상 4명에게 농림부장관상을, 최우수상 8명에게 산림청장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작품은 작품집을 발간하여 배포합니다.

### 홍릉숲교실 매년 네번째 주

매달 한 차례씩 홍릉수목원에서 금교실을 개최합니다. 20명 내외의 푸른숲선도원들이 홍릉숲에서 숲탐방을 하며 나무와 풀, 곤충 등을 관찰하는 등 숲체험학습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푸른숲선도원 모자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는 매달 15일까지 지도교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2005년 푸른숲 청소년 금 체험학습

2005년도부터 전국의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를 위한 산림학교를 개교합니다. 올해는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2박 3일간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체험학습과 함께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 등 금 관련 봉사활동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미래의 숲인재들을 양성합니다.

## 단체의 숲

'단체의 숲'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의 숲'의 하나입니다. 2005년 말까지 '단체의 숲'을 지정받아 '청소년의 숲'으로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푸른숲선도원들이 가꾸어 갈 '청소년의 숲'은 국유림 숲 관리 봉사 활동과 숲체험학습의 장으로서 푸른숲선도원들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자긍심을 고취할 것입니다.

## 푸른숲선도원 홈페이지

2005년 8월, 푸른숲선도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숲교육과 숲봉사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로 채워집니다. 특히 푸른숲기자단이 운영하는 페이지를 통해 산림 훠손, 숲의 변화 등 지역사회와의 숲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푸른숲선도원

푸른숲선도원은 학교숲 가꾸기, 화단 가꾸기 등 소속 학교의 숲 관련 활동에 앞장섭니다. 푸른숲선도원의 학교숲 가꾸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묘목 및 나무이름 풋말 등을 제공합니다.

## 산림청 임업연수원

산림청의 임업연수원에서 운영하던 생태환경교원반에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반을 신설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45명의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여러분이 숲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조연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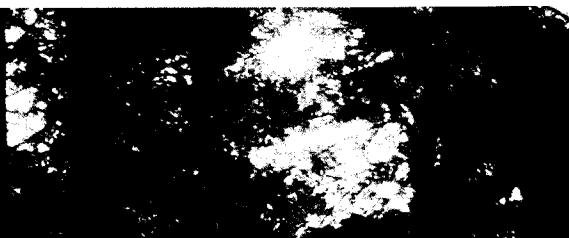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게나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른숲선도원 유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탐스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푸른숲선도원은 자연 안에서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보호 활동 등 학습적·인양적·봉사 정신을 고양하고 미래를 향한 개척정신을 기른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더 큽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을 미래의 꽃나무로 기르고 키우는 푸른숲선도원이 시드길 시. 어려움과 함께 여러분의 노력에 짚은 감사를 전하며 우리 푸른숲선도원이 미래의 꿈을 헤아리고 미래를 꿈꾸며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림청장 조연환



## 미래의 푸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푸른 숲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공유하게 될 푸른숲선도원 소식지 제1호가 나오게 되어 매우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과 IT 환경의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전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식지는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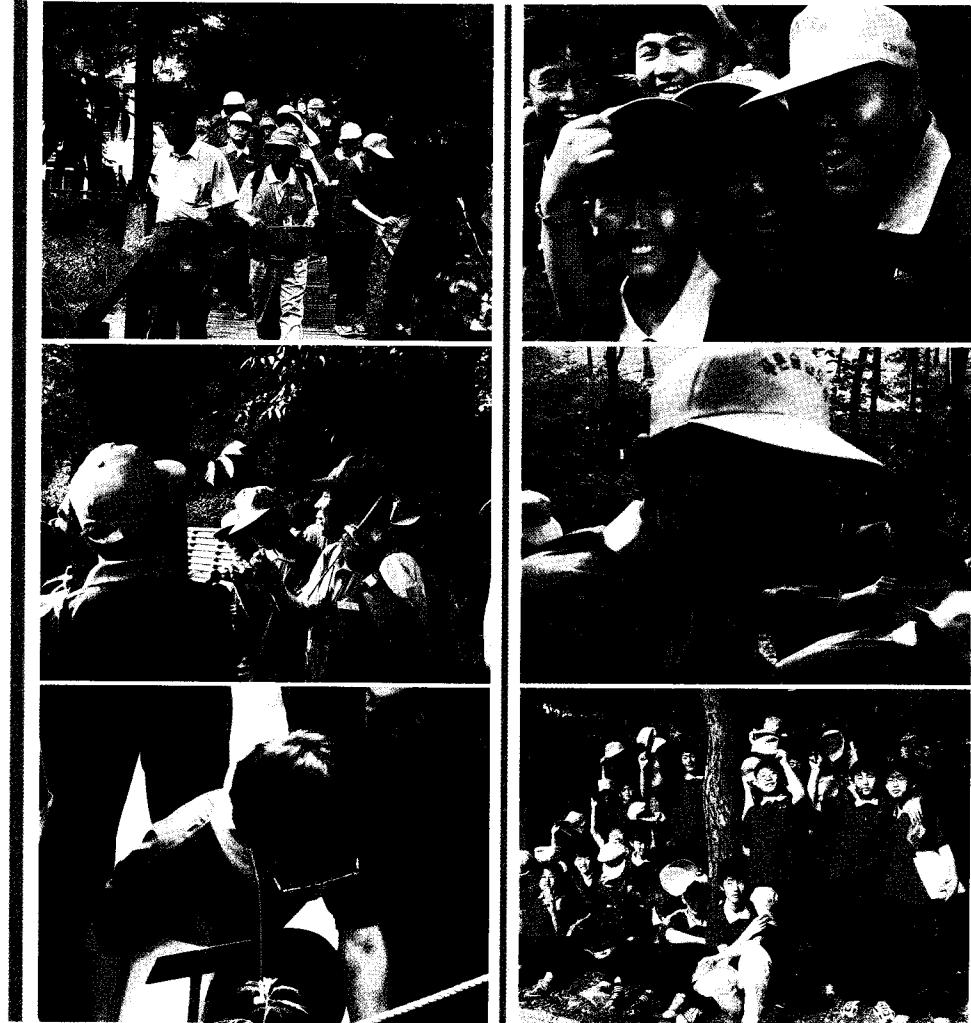
이제까지 한그루녹색회는 최일선에서 많은 미래의 환경지킴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 녹색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그루녹색회장 이은우

## 숲에서 숲이 되다

동성중학교 푸른숲선도원들이 홍릉수목원을 찾아왔습니다. 정문 앞에서 박우철 선생님과 17명의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꾸물꾸물 걱정스런데 날씨가 때맞춰 싱그레운 아이들의 얼굴처럼 개었습니다. 오늘은 '푸른숲선도원 홍릉 숲교실'이 활짝 문을 여는 날입니다. 행복한 6월의 오후입니다.



2시간 전부터 숲교실에서 숲해설가 이재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이재근 선생님은 정년퇴임 후 숲 전도사로 변신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늘 매고 다니는 가방 속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푸른숲선도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돋보기와 자연채취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계수나무 아래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트 모양의 잎이 무성한 계수나무를 볼 때마다 숲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겁니다.

벗나무, 소나무, 자귀나무와 인사하고, 얘기똥풀, 개망초, 거북꼬리, 질경이를 지나, 초목원에 왔습니다. 쑥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쑥이 나오는 최초의 문헌은?” … “삼국유사요!” “단군신화요!” 숲속에서는 공부가 더 즐겁습니다.

네모난 의자 대신 숲속 둑근 나무밀둥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숲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啊! 숲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새 모두들 숲이 되었습니다.

숲 아래에서 사철나무 잎으로 피리를 만들어 누가 더 소리를 잘 내나 대회를 열었습니다. 삐삐~ 입에서 푸른 냄새가 납니다. 숲을 지나오는 동안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놀랍고 멋진 경험입니다.

숲교실에는 칠판이 없습니다. 무거운 책도 필요없습니다. 하늘과 땅, 나무와 풀과 새와 곤충,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교재입니다. 이런 교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17명의 나무들이 입을 모읍니다.

##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가꿉니다

**森林即生命, 育林即育人** “숲은 생명이 숨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산림현장)”고 한다.

그렇다. 숲에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다.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녹색 수업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인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 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림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애호정신을 고취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그루녹색회에서 개발·적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다채로운 산림환경봉사 활동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설렘** 푸른숲선도원, 청소년 환경기자단원, Scout 대원, 우리 학교 어린이들과 가까운 산으로 숲을 찾아 현장학습을 떠날 기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아이들의 마음은 그저 학교를 떠나서 푸른 산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들뜬다. 도심의 탁한 공기 때문에 답답하고 매스껍기까지 하던 콧속, 가슴 속에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이들을 설레게 하는가보다.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숲에만 가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신나게 펼쳐 나간다.





나뭇잎을 살펴보고 기둥과 껍질을 만져보며, 땅에 엎드린 아주 작은 이름 모를 꽃잎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며 쫑알대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청진기를 나무 기둥에 대고 물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신기해 하는 아이들의 함성을 듣고 있노라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와 과일 껍질들을 일반 쓰레기에서 분리하여, 유기 물로 분해 가능한 것만 골라, 나무 뿌리 근방에 묻고 나뭇잎으로 덮어 주는 아이들의 작은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면-

종이는 이면지까지 쓰면서 아껴 써야 하고, 일반 쓰레기에서 종이류를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따로 모아 관리함으로써, 종이 원료인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열띤 토론을 듣고 있노라면-

머물던 자연에는, 흔적은 남기지 않고 감사함만 남겨야 한다며, 활동하던 자리를 말끔히 치우는 아이들의 부산함을 보고 있노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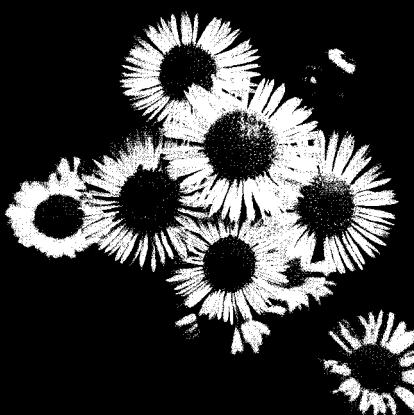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숲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옹골찬 다짐이 배어 있는 아이들의 현장학습 소감 글을 읽고 있노라면-

저들의 작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파란 미래와 희망을 만난다.

**희망**     숲 사랑 활동에 우리의 밝은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앞으로도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계속할 티이다. 우리의 희망인 그들과 함께 !

#### 박홍식 선생님의 풀꽃 이야기(1) / 개망초

#### 예쁘고 알미운 풀



요즈음 주위를 살펴보면 눈에 잘 띠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꽃잎에 가운데가 노란색의 계란같이 생긴 꽃, 이름은 '개망초'입니다.

처음에 이 꽂을 보고 모두들 이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다가 개망초가 귀화식물이고, 주위의 다른 식물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들며, 번식력이 너무 좋아 우리 자생식물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 뽑아 버려야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멀리 북아메리카에서 온 이 작은 풀이 우리가 황폐화시킨 땅이나 경작하지 않은 땅에 자라면서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쁘고도 알립고도 고마운 풀인 셈이죠.

〈박홍식 선생님은 한그루녹색회 운영위원입니다.〉

# 꿈꾸는 친구들

상곡초등학교 김종진 선생님의 인사와 푸른숲선도원들의 6행시



공원처럼 아름답다고 해요.

우리 서울상곡초등학교는

늘 푸른 마음으로 푸른숲선도원과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학교를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진달래, 철쭉, 살구꽃, 복숭아꽃, 자두꽃,  
하늘 매일톱이랑 금낭화도 피었지요.  
일그러진 마음도 교문을 들어서면  
활짝 펴진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 쑥갓, 아욱, 균대  
없는 채소가 없지요.  
토마토에는 잉증맞은 방울토마토가  
송이송이 매달렸고  
흰 나비, 노랑나비들이 텃밭에서  
마냥 둥굴고 있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예쁜 꽃과 나무에게 물을 주며 인사하는  
선도원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맷혀도  
마냥 즐겁기만 하대요.  
아름답고 예쁘게 커가는  
우리 학교의 푸른 친구들  
푸르고 희망찬 내일을  
꿈꾼답니다.

- 김종진 선생님



**푸른 숲 속에**  
온처럼 소중한  
**숲 속 친구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해내는 착한 숲 속  
친구들 말썽쟁이 내 동생  
**도진이도 숲에 가면**  
원처럼, 베죽 짤 하나 없는 등  
굴고 착한 마음으로 변했어요.

- 김현진

**푸른색에**  
온빛 잎을 가진  
**숲에는**  
선녀들이  
도르래가 달린 줄을 타고  
원을 그리며 내려온다.

- 박소연

**푸른 하늘 한가운데**  
온하수가 있습니다.  
**숲속처럼 아름다운 곳**  
선도원들은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도라지꽃도 피어 있고  
**원숭이도 뛰노는 곳**

- 박선우

**푸른 숲을**  
온하수보다 더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기 위해**  
선행을 하고  
도시를 가꾸는 푸른숲선도원  
원, 투, 쓰리 삼곡 푸른숲선도원  
원 파이팅!  
- 이한솔

**푸른 내일을 꿈꾸며, 푸**  
른 학교를 만들자  
**숲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선도하여 나무를 가꾸고  
도시 속에서 자연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원 없이 푸른 내일을 만들자

- 김우영

**푸르게 푸르게**  
온빛이 나도록  
**숲을 가꾸는**  
선행선도원이 될 거예요,  
도시의 모습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니까요.  
- 조아람

**푸른 내일을 가꾸고, 푸**  
른 상곡을 만드는  
**숲을 사랑하는 상곡의 푸른숲**  
선도원  
도시보다  
원시림처럼 아름답게 우리 학  
교를 가꾸자  
- 박규민

**푸른숲선도원들은**  
온이나 금이 있는  
**숲을 원치 않습니다. 신**  
선한 바람이 있고  
도시(흔집한)와는 다른  
원시림처럼 고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 김지훈

# 2019년 푸른숲선도원 참가 학교들

(서울특별시) 김포초 개봉초 경북초 계상초 녹전초 동일초 신계초 삼수초 서울개포초 서울대현초 서울도곡초 서울동일초 서울애봉초 서울명신초 서울보광초 서울봉현초 서울삼곡초 서울송중초 서울송신초 서울신림초 서울신운산초 서울언주초 서울연희초 서울옹곡초 서울인수초 서울장안초 서울증진초 서울학동초 서울한남초 서울호제초 서울후남초 서정초 수락초 신계초 신원초 영도초 오정초 옥진초 원광초 중계초 중원초 증현초 청계초 한신초 현영초 홍인초 간대부속중 경성중 경희중 노원중 상명사부속여자중 서연중 압전중 종인중 휴경중 경인고 누원고 성암여자정보산업고 신목고 진선여자고 칭동고 칭량고 휴문고 <부산광역시> 연신초 부신진초 다선초 사하초 아미초 토성초 휴립초 중앙초 몽호초 분포초 신동초 동주초 벽양초 상학초 학장초 명진초 금정초 서북초 인자초 해동초 일광초 연산중 소음중 개금중 부산진여자중 등의증 동평여자중 다선중 부산여자중 남도여자중 동향중 신동중 분포중 남천중 덕포여자중 도동중 주례여자중 충현중 금임중 동현중 내성중 기장중 운동중 빛여자중 인지중 날성여자고 동암고일고 분포고 일광고 주례여자고 한국테크노파워고 <인천광역시> 신화여자중 <광주광역시> 각학초 굽구초 동림초 동산초 동운초 두암초 무등초 문산초 문주초 문정초 문화초 문화초 복주초 비아초 산수초 서리초 스피릿초 동정초 수청초 신창초 윤봉초 윤산초 월봉초 월산초 유덕초 유진초 정암초 문산초 문주초 청단초 대봉초 청담초 경신중 고려중 동신여자중 종인중 광주여자고 광주여자고 국제고 금호고 서강고 석산고 <대전광역시> 송종초 자신초 단간초 대봉초 청담초 고민초 현경초 하정초 휴현초 청진초 부천초 대연초 대명초 대봉초 대명초 봉화초 신매초 범일초 고산초 달침초 육수초 경동초 매호초 대진초 죽전초 신원초 대마초 월곡초 이곡초 대남초 장성초 학산초 용산초 용전초 성서초 장신초 신당초 월배초 도원초 화원초 허민초 공선중 영신중 불로중 신림중 경상중 종인중 소선여중 대서중 죽전중 승현여중 성당중 학산중 학산중 이국중 동분리중 구지중 서재중 학원중 관방고 조지갑고김고(강원도)> 기평초 강원초 강포초 강현초 거문초 거진초 경포초 계포초 고현초 경근초 간현초 광덕초 광평초 교동초 교학초 구송초 굽촌초 귀리초 근남초 근덕초 기린초 남부초 남선초 남원주초 남평초 낭우초 내대초 내내초 내성초 낸신초 뉴진초 닥복초 대진초 대회초 도거초 도암초 도창초 동평초 동내초 동평중 동전초 동충초 동해중인초 두일초 두한초 두나초 두문초 망상초 매신초 면운초 영덕초 묘정초 미탄초 벽민초 블내초 불광초 복평초 북원초 북평초 비봉초 사북초 산양초 삼성초 삼척초 삼포초 삼남초 삼강초 서면초 서석초 서원주초 서원초 서사초 석하초 성남초 성덕초 성복초 소이초 소양초 속초초 산남초 신림초 신천초 신월원초 생옹초 아이진초 안미초 안흥초 양구초 양명초 어문초 연당초 영령초 영월초 예미초 오호초 유통초 율암초 유흥초 우산초 우천초 원주심육초 원통초 유풍초 인제남초 인제초 일당초 장성초 장성초 원장초 장호초 정호초 정리초 청진초 조성초 주전초 죽리초 종인중 종인중 종인중 청중초 천곡초 천진초 철암초 청암초 청밀초 조준초 천진교당비부설초 천은초 차미초 대백초 대평초 대서초 대장초 통리초 풍산초 하장초 흐남초 현전초 학백초 험태초 호선초 흐천초 흐계초 흐천초 흐천초 흐춘초 흐운초 흐정중인초 흐진초 흐제초 강릉중 강평중 경포중 기린중 남천천여자중 내변중 대동여자중 대화중 도여여자중 동행중 동해중 누운중 봉래중 분평중 북평중 삼마중 신천중 상서중 상장중 서식중 석정여자중 설여여자중 어랑중 암월중 용화중 우여여자중 우천중 인제중 임계중 장성여자중 정신중 주천중 진광중 전부중 철원중 춘성중 치악중 태백중 할백여자중 훙천여자중 홍진중 화동중 황지중 흥성중 김하고 대하고 봉하고 살하고 삶하고여자고 신월원고 영월고일고 우봉여자고 정선고 철암고 춘천농공고 춘천실업고 춘천여자고 평하고 흥천농업고 횡지고 흥지정보산업고 횡하고 청기고> 기남초 기평초 갑길초 갈매초 갈리초 김정초 개교초 김미위초 경안초 고봉초 고암초 고천초 꼭번초 광천초 광천초 광산초 광진초 광진초 광평강덕초 광평남초 광문초 광주초 군남초 군문초 군수초 군포화초 궁평초 금계초 금곡초 금교초 금빛초 금광초 김포시초 김포초 남현초 내내초 담남초 당시초 담정초 대광초 대성초 대원초 덕신초 덕진초 덕현초 도곡초 도당초 도일초 도정초 동곡초 동보초 동북초 동식초 동수원초 동수원초 두동초 대진초 매신초 매헌초 영인초 목감초 목입초 문진초 문원초 디급초 미원초 백운초 백연초 백인초 백의초 백희초 보신초 부위초 부전봉초 부천복초 부천신홍초 부천역곡초 비릉초 비전초 사동초 산곡초 산복초 산임초 삼팔초 삼리초 삼현초 생여초 서봉초 서암초 서정초 서초초 선일초 성남서초 신동초 성사초 성신초 성수초 성신초 성포초 성호초 세교초 세류초 소사벌초 소오초 소현초 솔라초 송복초 수성초 수정초 시화초 신동초 신산초 신풍초 심희초 인국초 인통초 인중초 양국초 양평초 어봉초 여주초 어홍초 연천남포초 연천왕산초 연천초 언동초 영화초 오금초 오동초 오후초 유흥초 윤인초 윤인중 우만초 우만초 운임초 운천초 원곡초 윤원초 유현초 윤은초 원내초 원내초 원위초 이충초 이충초 임진초 임진초 힘진초 적서초 전곡초 전봉초 청남초 청왕초 청재초 청진초 제일초 조준초 차원초 주엽초 중앙초 종인중 청암초 칭운초 청평초 초성초 침봉초 침봉초 태평초 태평초 퇴계원초 파장초 평일초 편평초 풍무초 풍당초 하성초 하팀초 한솔초 한일초 학평초 행주초 현희초 호동초 호암초 흐령초 흐란초 회화초 회화초 회진초 화홍초 허드초 허밀초 험초 흉도초 경인중 고속중 고종초 광산중 광주중 군남중 군포중 궁내중 기인중 김포중 남수원중 내내중 대광중 문산복중 백학중 부천남중 부천여자중 비봉중 산남중 산봉중 삼갈중 세교중 송단중 수성중 암일여자중 어유중 연천중 영덕중 용인중 저동중 전과중 정남중 청산중 희보중 택여자중 평택중 하성중 강서고 경인고 고양고 고잔고 구성고 대평고 양고고 엑산고 수성고 수원농생명고연고연고영생산업고 우성고 원종고 유고고 전곡고 풍덕고 <경상남도> 기쁨초 기례초 기야초 기야초 김진초 고남초 광동초 구해초 군복초 군산초 군성초 낙서초 낙남초 남진초 남해초 내동초 노산초 능동초 대곡초 대봉초 대신초 대의초 대성초 덕산초 덕산초 도동초 동연초 동신초 두문초 미천초 밀성초 밀양초 밀주초 반승초 배영초 백신초 백진초 범여초 범수초 병곡초 병곡초 병래초 병수초 병원초 부립초 부복초 북면초 사봉초 사천초 산내초 산동초 산청초 산체초 산성초 산동초 삼봉초 삼복초 삼일초 삼별초 삼초초 서삼초 서천초 선진초 신학초 소답초 송정초 송진초 수곡초 수동초 송진초 신기초 신인초 신월초 생계초 어리초 약간초 약간초 인계초 안민초 안인초 양산초 양주초 예교초 예동초 웅남초 웅남초 윤연초 윤우초 원동초 월성초 월천초 월촌초 위름초 위성초 유목초 유림초 유영초 유원초 의령초 이반성초 정곡초 정동초 정춘초 주의초 종인중 중앙초 자리초 자수초 진교초 진남초 진동초 진정초 향남초 향동초 창선초 청선초 청진초 청도초 청지초 청진초 흐령초 흐란초 흐령초 흐란초 하복초 하복초 한리초 한평초 할양초 힐포초 혼동초 확진초 황천초 금남중 남하중 내서중 달성중 대구중 덕산중 미산중 미천중 미천중 미중중 정복중 정유중 범수중 보령중 봉원중 삼령진중 삼현여자중 생활중 생초중 실진중 약당중 양산여자중 원동중 의령여자중 이동중 정복중 정유중 중인중 칠점중 전명여자중 전서중 진주남중 진주여자중 진주제일중 진주중 청암중 충무여자중 충무중 칠성중 통영중 팔룡중 험안여자중 함인중 향여여자중 힐링중 흥진중 경기해양과학고 경진고 단성고 동령고 명신고 밀양고 보광고 삼방진고 서상상업고 신난정보고 안의고 의령여자고 진양



# 자랑스러운 숲봉사단, 우리는 푸른숲선도원입니다

- ♣ 푸른숲선도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산림보호에 남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구성된 미래의 '푸른숲지킴이'입니다.
- ♣ 산림청은 지난 1991년부터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숲 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푸른 숲을 지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푸른숲선도원을 선발·육성하고 있습니다.
- ♣ 푸른숲선도원은 시·도(시·군·구)청이 시·도(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며, (사)한그루 녹색회에서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푸른숲선도원은 매년 산불예방 캠페인, 식목일 기념행사, 묘목 나누어주기, 학교 푸른 숲 가꾸기, 하기수련대회, 그림·글짓기대회, 숲 체험 캠프 등을 통하여 우리의 숲을 지키고 가꾸는 실천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푸른숲선도원 선발 방법

- ♣ 선발 대상 :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 중·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 ♣ 선발 기준
  - 학교 생활에 모범적이고 자원봉사 정신이 강한 학생
  - 숲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연보호정신이 투철한 학생
- ♣ 선발 절차 : 전국의 시·도(시·군·구)청이 시·도(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 추천에 의합니다.

## 푸른숲선도원 주요 활동

- ♣ 산림청이 운영하는 각종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
- ♣ 푸른숲선도원 하계 수련대회 등 각종 수련대회 참가 ♣ 푸른숲선도원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 참가
- ♣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수업 프로그램 참가 ♣ 국유 휴양림에서 추진하는 산림학교 및 숲해설 프로그램 참가
- ♣ 학교 및 지역사회 숲 관련 봉사활동 참가 ♣ 산불조심 캠페인, 산지정화, 백두대간 대청소, 식목일 나무심기 참가
- ♣ 모범 푸른숲선도원 발굴, 시상 ♣ 임업연수부 생태환경교원반(직무연수), 지도교사 캠프 등 지도자 연수

## 2005년도 푸른숲선도원 선발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서울	84	1,439	63	1,168	11	148	10	123
부산	50	931	22	396	23	401	5	134
대구	63	815	44	577	17	205	2	33
인천	1	7	-	-	1	7	-	-
광주	40	653	32	535	4	65	4	53
대전	30	474	25	432	2	18	3	24
울산	50	870	40	656	7	144	3	70
경기	314	4,122	240	3,419	54	504	20	199
강원	232	3,628	167	2,746	47	655	18	227
충북	125	1,716	78	1,147	36	452	11	117
충남	175	1,869	134	1,531	31	246	10	92
전북	172	2,129	124	1,600	37	412	11	117
전남	244	3,797	153	2,586	64	849	27	362
경북	297	4,643	189	3,157	79	1,083	29	403
경남	216	3,118	141	2,184	56	707	19	227
제주	31	398	28	370	3	28	-	-
계	2,124	30,609	1,480	22,504	472	5,924	172	2,181